

대학의 융합 시나리오와 그 딜레마

김혜나*

[초 록]

융합(학제성)은 오늘날 정체성의 위기에 처한 대학의 정당화 논리로 정착하였다. 유연성, 자유, 혁신, 저항 등 융합을 따라다니는 미사여구들은 아무것도 지시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정치적, 인식론적 입장을 포섭해내는 전략을 증거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굳어져가는 ‘융합 신화’를 해체하고자, 그것을 둘러싼 담론들을 기술자본주의, 자유주의, 급진주의의 세 부류로 구분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먼저, 공학적 정언명령을 통한 자본 축적을 유일한 목적으로 삼는 기술자본주의는 혁신, 문제해결, 책무성이라는 위선적 장식과 함께 ‘융합 포르노’를 끊임없이 생산함으로써 담론 경쟁의 승기를 거머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흠볼트식 근대 대학 이념의 계승자를 자처하는 자유주의는 지식의 총체성 회복을 통한 인간의 해방을 지향하지만, 과거에 대한 향수는 역사적 사명을 잃어버린 대학에서 공허한 메아리로 존재할 뿐, 체제에 어떤 타격도 가하지 않는다. 이와 달리 급진주의는 학문을 비롯하여 경계짓기에 터해 있는 모든 규율체제에 근본적으로 도전하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과

* 대구대학교 기초교육대학 조교수

주제어: 융합, 학제성, 분과학문, 기술자본주의, 자유주의, 급진주의
Interdisciplinarity, Disciplinarity, Technocapitalism, Liberalism, Radicalism

의 모순적 관계 속에서 저항력을 잃어가는 듯하다. 배제가 아닌 포함, 부정이 아닌 긍정을 무기로 하는 융합은 반대와 거부를 불가능한 것으로 만듦으로써, 진화하는 자본주의와 대학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훌륭한 수단으로 거듭나고 있다. 서로 다른 융합 시나리오와 그것이 직면한 모순에 대한 성찰은 결국 융합과 분과학문이 유사한 병리학을 공유하고 있음을 드러내준다. 이제 반복되는 구조조정의 병원(病原)에 또 다시 새로운 ‘각본’으로 대응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1. 수상한 융합 예찬

왜 ‘학제적’(interdisciplinary)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면 크고 작은 모든 품종이 누워 뒹굴면서 꼬리를 흔드는가?¹⁾

한국에서 융합이라는 이름으로 더욱 친숙한 학제성(interdisciplinarity)²⁾은 정당화 위기에 맞닥뜨린 대학과 학문에 은혜로운 출구를 열어주면서 이 시대의 지배적인 ‘지식 정치학’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어지러운 대학 개혁의 구호들이 빈 수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가려주는 화려한 눈속임으로 제격인 모양이다. 게다가 정부, 기업 할 것 없이 읊어대는 융합 찬양은 대학들이 수치심이라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융합이라는 상품

1) L. J. Davis (2007), “A Grand Unified Theory of Interdisciplinarity”, *The Chronicle of Higher Education* 53, p. B9.

2) ‘interdisciplinary’ 또는 ‘interdisciplinarity’의 번역어로는 다양한 용어가 병존하고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융합’이다. 이는 원어의 의미를 고려할 때 자연스러운 번역이라고 보기 어려운데, 융합이라는 말은 학문(discipline)을 지시 대상으로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기술·산업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는 융합이라는 용어가 학문까지 잠식한 것은 우연이라기보다는 특정한 맥락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세계적, 일반적 차원에서는 학제성(學際性)이라는 번역어를, 한국, 그리고 기술·산업적 차원에 국한되는 경우에는 융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을 위해 몸을 내놓을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 주었다. 대학 홈페이지에서는 융합이라는 말을 보지 않는 것이 더 어려워졌고, 각종 재정지원을 신청할 때는 더욱이 필사적으로 내세워야 하는 키워드가 되었다. 바야흐로 학제적 군비경쟁(interdisciplinary arms race)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한국의 융합은 최근 10~20년을 전후하여 급속히 유행하기 시작한 미제 수입품이라고 하나, 영미권에서 회자되는 역사는 좀 더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미국에서 ‘interdisciplinary’라는 용어 자체는 1920년대 중반에 처음 사용된 것으로 여겨지지만 학제적 실천의 기원에 대해서는 다양한 입장이 존재한다. 근대 분과학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학제성이 등장했다는 주장이 지배적이긴 하지만, 계몽시대나 중세, 고대까지 뿌리를 추적하는 경우도 있다. 여기에 학문 분야별로 다르게 상정하는 기원들까지 더하면 지형은 한층 더 복잡해진다. 20세기 이후에 전개된 양상도 다중다기하기는 매한가지다.

그 배경에는 상충하는 의미들로 가득 차 결국에는 무의미로 향하고 만다고 할 수 있을 학제성 개념의 내재적 문제³⁾, 그리고 학문을 포함한 모든 인위적 구분은 분리된 것들 간의 의존적 관계에 기인하며, 필연적으로 구분선에 대한 질문과 저항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는 단순한 진리가 버티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서로 다른 철학적, 정치적 접근들이 학제성이라는 이름 아래 수렴되는 현상을 부분적으로 설명해준다. ‘학제적’이라는 단어를 구성하는 학문(disciplinary)과 사이(inter)는 둘 다 명확한 실체를 가지기 어려우며, 따라서 보수적 엘리트, 진보적 학자, 급진적 반대자 모두가 동상이몽을 꿈꾸며 학제성을 외쳐댈 수 있는 것이다.⁴⁾

3) ‘interdisciplinary’는 1977년 병든 영어 사전(The Dictionary of Diseased English)에 등재된 바도 있다(J. T. Klein (1996), *Crossing Boundaries: Knowledge, Disciplinarity, and Interdisciplinarity*, Charlotteville, NC: University of Virginia Press, p. 10).

4) M. E. Kann (1979), “The Political Culture of Interdisciplinary Explanation”, *Humanities in Society* 2, pp. 187-188.

이 아이러니한 상황은 학제성의 신화를 증폭시키는 장치로 작동한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느 누구도 학제성 자체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으며, 만약 한다 해도 단지 ‘이런 학제성’이 아니라 ‘저런 학제성’을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다. 경직되고 억압적이며 정제된 분과학문의 이미지와 대조적으로, 유연하고 자유로우며 혁신적인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학제성에 반대할 만한 명분을 찾기 어려운 분위기도 존재한다. 학제성을 둘러싼 찬사와 논쟁이 계속되는 동안 그것은 털끝 하나 건드릴지 않는 성역으로 고귀하게 보존된다. 특히나 생각하지 않고 행동부터 하고 보는 한국의 풍토에서 시끄러울 정도로 융합 타령을 되뇌는 녹음기들은 무수한 반면, 융합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들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녹음기들은 계속해서 몰역사적이고 탈맥락적인 ‘융합 강박증’을 생산하고 있다.

나는 이 글에서 학제성의 견고한 신화를 해체하는 데 관심이 있다. 이를 위해 학제성의 우산 아래 불편한 동거를 하고 있는 세 가지 담론과 그 정당화 논리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해보려고 한다. 여기서 논의하고자 하는 입장들은 첫째, 융합이라는 깃발을 앞세워 맹렬히 질주하고 있는 기술 자본주의적 입장, 둘째, 학문의 통합성과 대학의 본질을 지켜야 한다는 자유주의적 입장, 셋째, 학문 내에서 뿐 아니라 세계에 존재하는 경계들까지도 의문시하며 그것들에 도전하는 급진주의적 입장으로, 각기 다른 사회역사적 맥락을 갖고 있다. 이 담론들에 대한 성찰은 현대 사회에서 대학과 학문의 변화된 성격을 배경으로 하여 이루어질 것이며, 그 결과는 분과학문과 학제성의 공통적 딜레마를 폭로하는 것으로 마무리될 것이다.

2. 융합 포르노와 테크노크라시

어떤 최우선의 목적을 가지고, 서사에 상관없이 어떤 것을 지나치게 길게, 많이, 기계적으로 묘사하는 현상.⁵⁾

한국 사회의 포르노적 성격을 보여준 연극 ‘그러므로 포르노’의 구성원들이 내린 포르노 현상의 정의다. 이는 융합 예찬론자들이 짚어내는 담론의 성격을 잘 설명해준다. 그들은 융합이라는 포르노를 실재없이 생산하여 사람들이 더 이상 질문하거나 사고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데 꽤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또 다른 포르노와 결합하여 더욱 위력을 과시하고 있다. 여기서 추구하는 최우선의 목적은, 그들이 의도하던 그렇지 않든, 기술자본주의(technocapitalism)의 확대 재생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술자본주의는 시장자본주의의 새로운 형태로, 발명과 혁신을 위한 지식의 상품화를 추구하며⁶⁾ 그 바탕에는 과학과 기술로 세계를 전면개조할 수 있다는 하이 모더니즘(high modernism)의 신념이 깔려 있다.⁷⁾

여기서 기술의 의미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문자 그대로의 기술, 테크놀로지다. 슈미트(Schmidt)는 미국의 국가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에서 제시한 기술 융합(converging technologies) 시나리오를 학제성과 관련하여 가장 영향력 있는 지식 정치학 중 하나로 보고, 그것이 과학/기술의 발전을 인간/사회의 발전과 동일시하는 낙관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는데⁸⁾, 한국에서

5) 손준현(2015), 「대중 머릿속 ‘포르노 현상’...이게 바로 한국사회의 민낯」, 한겨레 웹페이지, 한겨레, 2017. 8. 17. <http://www.hani.co.kr/arti/culture/music/693278.html>.

6) Luis Suarez-Villa (2001), “The Rise of Technocapitalism”, *Science & Technology Studies* 14, p. 4.

7) James C. Scott (1998), *Seeing Like a State: How Certain Schemes to Improve the Human Condition Have Failed*, New Haven, Conn.: Yale University Press, p. 4.

는 한술 더 떠 학제성을 융합으로 아예 대체해 버렸다. 대표적으로 나노(N), 생명공학(B), 정보화(I), 인지과학(C)의 융합(NBIC)은 인간을 조작 가능한 대상으로 만들면서도 그들 스스로 신이 되었다는 착각을 안겨주면서, 그리고 각각의 기술들이 융합되기 전보다 훨씬 더 막강한 파괴력을 자랑하면서 자본주의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고 있다.

기술의 두 번째 의미는 첫 번째보다 좀 더 넓은 것으로, 효율성, 관료주의, 행정 등 공학적 원리와 시스템이 지배하는 상태를 뜻한다. 근대 대학의 학문체제가 자연과학을 모델로 구성되었다면, 과학을 시장으로 더 가까이 데려가기 위한 오늘날의 표준적 (융합)학문은 공학이 된 것이 아닐까. 이것은 공학 분야가 대학에서 지배권을 갖게 되었다는 뜻이라기보다는 모든 분야가 공학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레딩스(Readings)는 시장 체제의 재생산과 이를 위한 행정적 효율성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는 오늘날의 대학을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가 아닌 ‘초국적 관료기업’으로 표현하였다.⁹⁾ 거대한 관료기업이 된 대학을 이끄는 것은 더 이상 명분상으로나마 존재하던 과학적 진리나 사회정의가 아니라 효율성의 원칙이며, 그것은 “Be operational or disappear”라는 준엄한 시대적 명령을 내린다.¹⁰⁾ 언뜻 보기에 맹목적이고 지향점을 상실한 듯 보이는, 사회와 대학을 광장하는 이 거대하고도 미세한 공학기계는 자본주의의 생명줄인 끝없는 생산을 촉진하면서 그것의 영생을 향해 바쁜 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8) Jan C. Schmidt (2007), “Knowledge Politics of Interdisciplinarity: Specifying the Type of Interdisciplinarity in the NSF’s NBIC Scenario”, *Innovation* 20, p. 313, 317.

9) Bill Readings (1996), *The University in Ruin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p. 3, 40.

10) Jean-François Lyotard (1984), *The Postmodern Condition: A Report on Knowledge*, Geoff Bennington and Brian Massumi, trans.,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p. xxiv.

기술자본주의적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공학적 시스템을 통해 자본의 축적에 기여하기 위한 도구로써 학제성을 옹호한다. 그들이 제시하는 융합 정당화 논리는 세 가지로 압축될 수 있는데, 혁신, 문제해결, 책무성이 그것이다.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융합적 접근이 탁월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따라서 현재 직면하고 있는 온갖 문제에 대한 만병통치약임을 설파하기 위해서는 분과학문을 악으로 규정하는 것이 효과적인 전략이 된다. 분과학문은 동질성과 폐쇄성이라는 고질병으로 인해 과거에는 진리에 접근하는 데, 최근에는 창조성과 혁신을, 그리고 그것을 위한 지식을 ‘생산’하는 데 결정적인 한계를 갖는 것으로 특징지어진다. “공동체는 문제를 가지고 있고 대학은 학과를 가지고 있다”는 OECD의 명제¹¹⁾는 복잡한 현대 사회의 전례없는 문제들에 대한 분과학문의 무능력과 시대착오적 성격을 간단명료하게 보여준다. 융합은 새로운 상품(goods)을 통해 사회적 선(good)을 만들어낼 수 있는 대안적 전진기지이며, 이는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그것의 증식에 방해가 되는 규제와 장벽들은 철폐되어야 한다.¹²⁾

우선 이처럼 분과학문과 학제성의 대립적 관계를 부각하는 것은 실제적 현상에 대한 기술이라기보다는 규범적 주장으로 볼 수 있다.¹³⁾ 분과학문이 지배했다고 믿어지는 시대에도 학제성은 분과학문 안팎에서 존재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것의 필수요소였다.¹⁴⁾ 그러므로 학제성과 무관한 분과학문 체제가 먼저 존재했고, 그 문제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해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학제성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은 말끔하게 다듬어진 일종의 각본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11) J. T. Klein (1996), p. 12.

12) Jerry A. Jacobs and Scott Frickel (2009), “Interdisciplinarity: A Critical Assessment”, *Annual Review of Sociology* 35, p. 48.

13) Angelique Chettiparamb (2007), *Interdisciplinarity: A Literature Review*, Interdisciplinary Teaching and Learning Group, pp. 13-17.

14) Angelique Chettiparamb (2007), p. 15.

그것이 실제의 반영이나 꾸며낸 각본이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각본이 사회적으로 설득력을 얻어 지배적 담론의 지위를 차지했다는 것이다. 이제 학문 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학문적 결과의 적절성, 정확성, 유의미성 따위가 아니라 더 많은, 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다.¹⁵⁾ 그리고 이 눈부신 혁신을 통한 ‘문제해결’이라는 것은 알고 보면 ‘문제생산’이자 문제의 진짜 원인을 보호하기 위한 속임수이며, 사회적 책무성(accountability)은 사적 이익을 공적 이익으로 둔갑시키는 회계(accounting)의 마술이다.¹⁶⁾

이 논리들은 학문적 실천의 실용성, 유용성에 대한 우선적 관심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을 터인데, 학제성이 분과학문 체제 안으로부터 배태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듯, 근대 대학의 시작부터 학문은 사회의 직접적 필요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을 맺어왔다.¹⁷⁾ 그러므로 대학은 사회를 환유할 수밖에 없었고, 학문적 효율성을 위한 분과구조의 발달은 유용하고 생산적인 사회적 주체,¹⁸⁾ 즉 전문가를 만들기 위한 목적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 이는 구성원들이 각자 배정받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사회가 안정과 균형을 유지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진보한다는 사회조직의 논리가 학문체제에 투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보다 직접적으로 실용적 문제해결을 추구하는 학문의 계보는 특히 세계대전의 맥락에서 지역학과 각종 군사적 목적의 문제중심 학제적 연구로 이어졌고, 기술융합과 영원한 혁신의 시대를 맞아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다. 학제성은 기술 발전과 경제 성장을 위한 수단이자 개인, 대학, 국가의 경쟁력을 높일

15) Jean-François Lyotard (1984), p. ix.

16) Bill Readings (1996), p. 32.

17) J. T. Klein (1990), *Interdisciplinarity: History, Theory, and Practice*, Detroit: Wayne State University Press, p. 20.

18) Alison Hearn (2003), “Interdisciplinarity/extradisciplinarity: On the University and the Active Pursuit of Community”, *History of Intellectual Culture* 3, p. 6.

수 있는 방안으로 선전되면서 대학이 시장, 국가, 군대와 형성하고 있는 견고한 카르텔을 표면화하는 동시에 망각하게 만든다.

그 배경에는 ‘수월성의 대학’이 자리하고 있다. 레딩스는 초국적 관료 기업이 된 대학을 과거의 ‘이성’이나 ‘문화’가 아닌 ‘수월성’을 추구하는 제도로 정의하고,¹⁹⁾ 수월성은 어떤 내재적 의미도, 외부적 지시대상도 갖지 않기 때문에 전지구적 자본주의의 가장 적절한 수사적 무기가 된다고 주장하였다.²⁰⁾ 학제성이 그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현대 대학의 곤경에 대한 신선한 구원으로 여겨질 수 있었던 것은 오늘날의 대학을 특징짓는 수월성 개념과 놀라운 유사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텅 비어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학제성을 통한 자본 축적은 융합 프로젝트를 통해 거대자본을 끌어오는 방식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반대로 융합을 명목으로 한 구조조정에 의해서도 가능하다.²¹⁾ 학제성은 그 자체로는 어떤 것도 말해주지 않는다.

그렇지만 무언의 행진 속에서 학제성과 수월성은 자본의 팽창에 걸림돌이 되는 대학과 학문의 장벽들을 제거함으로써, 대학을 유사시장으로 만드는 정상화(normalization) 과정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다. 자본주의가 국가의 장벽을 허무는 전지구화를 통해 무한한 욕망을 충족하려는 방식을 꼭 빼닮아 있다. 끝없는 확장을 지향하는 자본의 욕구는 물리적 한계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얼마든지 새로운 것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지식과 학문을 그것의 적소(適所)로 재발견하였다. 융합이라는 허울을 통한 대학과 학문의 변신은 진화하는 자본주의의 새로운 환유로(물론 자본주의의 진보에도 대학과 학문의 지대한 기여가 있었다는 점이 언급되어야 할 것이다), 발전의 복음을 더욱 효율적으로 전파하고 있다.

19) Bill Readings (1996), p. 14.

20) Bill Readings (1996), p. 17, 23.

21) Jerry A. Jacobs (2009), “Interdisciplinary Hype”, *The Chronicle of Higher Education* 56, *The Chronicle of Higher Education*, p. B4.

3. 흄볼트와 그리스에 대한 향수

대학이 시장의 압력에 잠식당해 ‘본질’을 잃었다고 한탄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이 상정하는 대학의 본질은 직업인보다는 인간이나 시민이 되는 데 필요한 학문과 교육을 제공하고, 시장이나 국가 등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와 자율성을 유지하며, 사회를 비판하고 정화하는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들 중에는 인문학이나 교양교육을 강조하는 입장이 많으며, 이를 통해 제너럴리스트 또는 최소한 전문성을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자신이 가진 전문지식과 기술이 어떤 영향을 갖는지를 이해하는 ‘교양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대학의 목표로 본다. 한국에서는 대학의 시장화를 비판하는 지식인들이 이러한 입장에 서는 경향이 있다.

기술자본주의적 입장에서처럼 학제성을 전면에 내세우지는 않지만 실용성에 치우친 분과주의를 비판하고 균형있는 교육적, 학문적 접근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이들 역시 학제성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의 관점에서 학제성은 외부에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의 내재적 본질이기에 때문에 학제성만을 따로 떼어내어 부각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여기서 이 입장을 근대 대학의 이념과 이상에 천착한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적 입장으로 칭하고자 한다.

이 입장에서의 학제성 정당화 논리는 인간과 지식의 총체성, 그리고 인류의 해방이다. 이 논리는 근대의 계몽주의, 합리주의, 인문주의를 근거로 삼고 있다. 인간을 무지와 편견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분과학문의 틀에 가두어서는 안 되며, 그러한 우물에 갇힌 상태에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자유교양교육, 또는 직접적 실용성과 거리가 있는 인문학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인간과 인간의 지식은 부분으로 쪼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통합적이고 온전한 것인데, 분과학문은 이러한 총체성을 왜곡하고 저해하게 된다. 그러므로

분과학문의 틀을 넘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전체적인 관점을 가질 때 비로소 편협한 고정관념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이다.

자유주의적 입장은 기술자본주의적 입장에 비해 좀 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근대 산업사회가 도래하고 사회·경제적 분업과 물질문명이 심화되면서 인간성과 문화의 분열을 애석하게 여기는 자들이 있었던 것이다. 이들에 의해 주창된 근대 대학의 이념은 자연과 이성, 국가와 대학, 공동체와 기술공학 간의 모순과 갈등을 변증법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전개되어 왔으며, 훔볼트를 포함한 독일 관념론자들부터 아널드, 리비스 등과 같은 영미권 학자들은 이러한 아포리아를 감당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양을 강조하였다.²²⁾ 교양(culture)은 지식의 통일체로서 학문(Wissenschaft)의 대상이 되는 문화, 그리고 개인적 발전과 인성 함양의 과정인 교양(Bildung)을 동시에 의미하는 것으로, 근대성에 의해 파편화된 국가, 문화, 사회에 다시 통일성을 부여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간주되었고 그 사명은 주로 철학이나 문학과 같은 인문학에 주어졌다.²³⁾ 이때 대학 또는 학제성의 역할은 인문학을 중심으로 한 교양교육을 통해 국민국가와 민족문화를 유지하고 창조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근대 대학과 학문의 역사는 산업사회와 국가와의 관계에서 그것의 모순된 기능—근대화, 산업화, 국가발전을 추동하면서도 그로 인한 부작용을 완화하는—에 대한 기대와 긴장 속에서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다룬 기술자본주의적 입장과 자유주의적 입장의 차이도 이러한 딜레마 속에서 대학과 학문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제기되어 왔던 논쟁의 연장선상에 있다. 하지만 결국, 진화를 거듭하는 자본주의와 산업혁명 앞에서 기술자본주의는 오지 않을 미래를, 자유주의는 흘러간 과거를 목놓아 부르고 있을 뿐이다.

22) Bill Readings (1996), pp. 62-88.

23) Bill Readings (1996), pp. 64-66.

분과학문 이전의 제너럴리즘을 이상화하고 그것으로의 회귀를 갈망하는 몸짓은 훔볼트를 넘어 근대 문명의 기원으로 여겨지는 고대 그리스에 대한 향수를 필연적으로 내포한다. 고대 그리스는 지식을 서로 다른 학문 분야로 구분했다는 점에서 분과학문의 기원으로 여겨질 수도 있는 반면,²⁴⁾ 근대에 비해 그 구분과 조직이 세분화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학제성의 기원으로 여겨지기도 한다.²⁵⁾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고대 그리스는 근대화와 산업화로 지식과 세계가 파편화되기 이전의 총체성을 간직한 황금시대로 간주된다.

그들이 그리워하는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가능할까? 만약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 시절은 정말 영광스러운 것이었을까? 레딩스에 따르면, 전 지구화로 인해 국민국가가 쇠퇴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족문화의 전수와 창조를 목적으로 하는 훔볼트의 대학은 그 사명을 잃어버린 탈역사적(posthistorical) 폐허가 되었다.²⁶⁾ 이와 함께 다원성과 이질성을 중시하는 포스트주의의 등장은 보편적 진리와 민족문화의 주체를 가정하는 근대 대학의 이념을 약화시키는 데 기여했다.

‘훔볼트 신화’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 애쉬(Ash)는 근대 대학의 모델이 훔볼트 사상에 근거하여 설립되었고 그것이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는 믿음은 역사적 근거가 없으며, 훔볼트적 이상은 이후의 필요에 따라 구성된 전통에 불과하다고 말한다.²⁷⁾ 그는 서구 대학의 실제와 동떨어져 있는 훔볼트적 이상에 기초한 주장들이 고등교육에 대한 논쟁을 왜곡해 왔다고 비판하고 있다.²⁸⁾ 일제시대의 제국대학을 시작으로 해방 이후의

24) Joe Moran (2006), *Interdisciplinarity*, London: Routledge, p. 3.

25) Allen F. Repko (2008), *Interdisciplinary Research: Process and Theory*, Thousand Oaks, CA: Sage, p. 31.

26) Bill Readings (1996), p. 6.

27) Mitchell G. Ash (2006), “Bachelor of What, Master of Whom? The Humboldt Myth and Historical Transformations of Higher Education in German-Speaking Europe and the US”, *European Journal of Education* 41, pp. 245-248.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 실용주의를 표방하는 미국의 주립대학 모델을 형식적으로 모방했던 한국의 경우에는 더욱이 근대 대학의 이상이라는 것이 애초에 존재한 적은 있었는지, 그것을 잃었다는 한탄마저도 서양의 꿈무늬를 무의식적으로 좇는 행위는 아닌지에 대해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미 지식을 위계적으로 구분했던 고대 그리스의 조각난 총체성을 과연 총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착각이 근대의 집산적 총체성 (aggregated totality)에 대한 환상을 낳은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성찰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고대 그리스의 학문이 갖는 내재적 한계와 당시 학문을 포함한 문명의 발달을 가능하게 했던 노예제 기반의 사회구조, 그리고 고대 그리스가 유럽의 지배층에 의해 현대 문명의 원류로 채택된 배경을 함께 평가할 필요가 있다.²⁹⁾ 서구 문명에 대한 기원으로서 그리스에 대한 서구의 찬양을 맹목적으로 답습하고 있는 것 역시 반성의 대상이다.

자유주의적 입장은 기술자본주의적 입장에 비해 양심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학문 체제 내에서의 부분적 변화와 재조직만을 상정하고 있으며, 학문 자체에 대해, 그리고 대학/학문과 사회/환경 간에 존재하는 경계에 대해 어떤 비판적인 문제제기도 하지 않는다. 학생(disciple)에 대한 교육(instruction)을 뜻하는, 즉 교수와 학생의 구분을 전제로 하는 분과학문(disciplina)의 어원적 의미가 여전히 구현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도 학제성의 관점에서 다시 묻지 않는다. 서구와 근대성의 우월성과 보편성을 표면적, 잠재적으로 가정하고 있다는 점도 비판받아야 할 대목이다.

요즘 한국의 상황을 보면 이들이 옹호하는 교양교육이 다시 그 의미를 인정받아 전성기를 맞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교양, 리버럴아츠, 인문학적 인재 등이 각광받고 있는 현실은 오히려 교양의 이상이 철저히 시장에 흡수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다. 이것은 대학에 대한 자유

28) Mitchell G. Ash (2006), p. 248.

29) 김봉률(2011), 『어두운 그리스』, 부산: 경성대학교 출판부, p. 7, 11.

주의적 주장이 레딩스의 말처럼 이미 시대착오적인 것이 되어 설득력을 잃었기 때문일까, 아니면 리버럴과 네오리버럴 간의 태생적 근친관계를 암시하는 것일까.

4. 경계짓기에 대한 거부

학문성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성찰은 모든 경계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이며, 위계적이고 배타적인 구분선들을 해체하고 전복해야 한다는 급진주의적 주장으로 이끈다. 이러한 부류는 통합과 전체론의 담론을 질문과 개입으로 대체하고, 학문 체제의 탈중심화, 탈안정화를 지향한다.³⁰⁾ 그 특징을 나타내기 위해 학제성에 ‘비판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거나(critical interdisciplinarity) 반학문성(antidisciplinarity, counterdisciplinarity), 비학문성(nondisciplinarity), 탈학문성(dedisciplinarity, undisciplinarity, postdisciplinarity)과 같은 개념이 사용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급진적 입장은 푸코식의 규율체제로 학문을 바라보는 데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사전상으로도 ‘discipline’의 정의는 행동적, 정신적 통제와 그 체계 등의 의미가 먼저 나오다가 마지막에야 배움의 분과(branch of learning)라는 뜻이 제시된다.³¹⁾ 실제로 학문은 내재적 구조 및 작동방식과 사회와의 외재적 관계에 있어서 전형적인 규율권력의 형태를 띠는 “대상화와 예측화의 메커니즘”³²⁾이다. 그것의 외부에서 인간,

30) J. T. Klein (2005), *Humanities, Culture, and Interdisciplinarity: The Changing American Academy*,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pp. 55-56.

31) Jack M. Balkin (1996), “Interdisciplinarity as Colonization”, *Wash. & Lee L. Rev.* 53, p. 953.

32) Joe Parker (2012), “The Ethico-politics of Dedisciplinary Practices”, *Interdisciplinarity and Social Justice: Revisioning Academic Accountability*, (ed. by Joe Parker, Ranu Samantrai, and Mary Romero),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p. 176.

문화, 사회, 자연은 모두 지식의 대상으로 존재한다. 그것의 내부에서 학생(disciple)은 학위를 받거나 학계의 일원 또는 관련 분야의 노동자가 되기 위해 계속해서 규준에 따른 등수매기기와 평가를 경험해야 하며³³⁾, 분과학문의 기성 구성원들도 끊임없이 패러다임에 대한 자신의 충성도와 적합성을 지적, 사회적 형태로 증명할 것을 요구받는다. 분과학문은 직접적으로는 감옥, 수용소, 병원, 학교 등의 각종 규율기관, 더 넓게는 사회 전반의 규율적 실천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서로를 되먹이며 발전하였다. 학문은 사회구조를 재생산하는 동시에 사회구조에 의해 재생산되는 것이다.³⁴⁾

규율체제로서의 분과학문은 내부와 외부, 정상과 비정상, 우월과 열등의 지속적인 경계짓기(boundary work)를 통해서만 존재할 수 있다. 실패 없이 돌아가는 분류기 속에서 분류당함의 의미와 그것이 만들어내는 경계의 맨얼굴을 직면하고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은 내부자의 입장에서 특히 어려운 일이다. 혹여 의문을 갖는 경우에도 분과학문이 만들어내는 여러 차원의 제도적 선분들 중에서 분과학문들 간의, 또는 분과학문 내의 하위학문이나 전공들 간의 가시적 경계에만 집중하여, 담을 낮추자거나 ‘더 나은’ 선을 그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 쉽다. 하지만 학제성에 대한 급진적 입장은 학문체제의 바로 그 기반을 의문의 대상으로 삼는다. 학문 간의 경계로 인한 ‘사상적 동맥경화’³⁵⁾ 뿐 아니라 정신/신체, 자아/타자, 문화/자연, 과학/미신, 대학/사회, 시민/외국인, 교수/학생, 남성/여성 등 근대성의 수많은 선긋기에 도전하는 것이 바로 이들의 학제성 정당화 논리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요구되는 것은 개혁

33) David R. Shumway and Ellen Messer-Davidow (1991), “Disciplinary: An Introduction”, *Poetics Today* 12, p. 212.

34) Angelique Chettiparamb (2007), p. 5.

35) Stanley Fish (1989), “Being Interdisciplinary Is So Very Hard to Do”, *Profession*, p. 100.

(reform)이 아닌 혁명(revolution)이다. 선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거하는 것만이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줄 것이다.

서구 사회에서 학제성에 대한 급진적 주장이 활성화된 때는 1960년대에서 70년대로 볼 수 있다. 이 시기에 격렬히 불붙었던 사회운동의 물결과 함께 여성학, 민족학, 흑인학, 퀴어연구, 탈식민연구 등의 학제적 분야와 주제들이 새롭게 등장하거나 크게 성장했다.³⁶⁾ 이 분야들은 기득권층의 이해관계에 의해 구성된 분과학문 체제가 대학 구성원들의 다양성과 실제적 삶, 당시의 사회운동을 전혀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소외된 집단들을 더욱 소외시키고 있다고 보았다. 이들은 학문이 “사회적 위계와 불평등을 보존하고 심지어 악화시키는” 효과를 갖는다고 주장하며 사회 정의의 문제를 학문에 대한 논의의 중심부로 가져오곤 했다.³⁷⁾

이 분야들, 그리고 각 분야 내의 다양한 입장들 사이에는 환원할 수 없는 차이와 이질성이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성의 질서 속에서 경시되고 무시받아 온 인간과 문화와 존재들에 주목한다는 점, 그리고 그들에게 침묵을 강요한 분과학문의 배제와 억압에 죄를 묻는다는 점에서 학제성에 대한 관점에서는 유사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이 근대가 낳은 대학과 학문 체제에 대한 근본적 비판으로 이어진 것은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근대라는 거대한 적과의 싸움에서 그들은 승리를 거두었는가? 그들이 승리했다면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하나의 진리, 하나의 문화 등에 대한 주장이 이제 고리타분한 것으로 간주될 뿐 아니라 도덕적, 정치적으로도 올바르지 않은 것으로 치부되는 현상에는 이들의 기여가 컸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들 자신 또는 그들이 연구하는 소수자들이 이전에 비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은 기존의 교육

36) Angelique Chetiparamb (2007), p. 15; Jerry A. Jacobs and Scott Frickel (2009), p. 57; Allen F. Repko (2008), p. 31.

37) Joe Parker (2012), p. 175.

과정과 학문체제에 새로운 학제적 지식과 실천들이 통합되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실세계에는 존재하지만 대학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여성, 흑인, 퀴어 등의 소수자들이 이제 대학 내에서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은 그들과 그들에 대한 이야기들, 그들의 대변자들이 제도권 내에 편입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들의 승리인가, 기존 구조의 승리인가. 기존의 분과학문과 내용적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제 그들 자신도 학문화됨으로써 구조적 측면에서는 규율체제를 재생산하는 대열에 합류하고 만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학문의 근간에 대한 야심찬 도전은 학문과 규율체제를 뿌리째 뒤흔들기보다는 결국 부분적으로 재배치하는 데 그친 것은 아닐까. 끊임없이 그들을 근대 학문의 에피스테메와 윤리정치학의 공모자로 되돌려 놓는 메커니즘은 이러한 딜레마를 지속적으로 재생산한다.³⁸⁾

기존 구조와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모순과 딜레마는 수월성의 논리에 의해 증폭된다. 아무리 급진적인 지식도 생산, 교환, 소비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마는 수월성의 순환구조는 비판적 내용을 무력화시킬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까닭이다.³⁹⁾ 비판적인 학제적 분야들이 교육과정에 포함되었을 때 그것이 학내 민주화나 다양성, 또는 융합의 수월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계산되는 비참함은 그것들이 교육과정의 바깥에 머무르도록 거부되고 배제될 때보다도 돌이킬 수 없이 고유의 존재 의미를 앗아가는 일이 될 수 있다. 어쩌면 교육과정이라는 구조와의 동거를 수용한 것 자체가 굴욕의 시작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비판적 담론의 참여자들이 학문적 활동을 하는 동시에 그 활동을 가능케 하는 조건을 늘 의식해야 하는 거의 불가능한 과제를 짊어지게 만든다.⁴⁰⁾

38) Joe Parker (2012), p. 179.

39) Bill Readings (1996), pp. 163-164.

40) Stanley Fish (1989), p. 108.

급진적 입장의 학제적 분야들이 점점 이론화되고 탈정치화되는 현상은 어쩌면 구분선을 제거해야 한다는 그들의 정치적 주장과, 구분선을 드러내고 인식하는 과정에서 그 인식의 기저에 있는 구분선은 또 다시 은폐되고 달아날 수밖에 없다는 인식론적 주장 간의 불협화음에서 비롯된 것인지도 모른다.⁴¹⁾ 종족, 인종, 성과 같은 구체적 실체가 계급과 같은 추상적인 합리적 범주보다도 자본주의 사회에 손쉽게 동화된다는 관찰은 ‘급진적’이라는 수식어를 더욱 무색케 한다.⁴²⁾ 근대적 주체의 폐허 속에서 등장한 파편화된 자아들은 너무나도 쉽게 다양성이라는 이름의 획일적 네트워크 사이로 녹아내려 버리는 것 같다.

5. 학문들(disciplinary) 사이(inter)에 있다는 것

또다시 하는 말이지만 결국 구조조정에서 살아남는 건 구조뿐이다. 예외는 없다. 이 안에서 그 누구도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⁴³⁾

학문들 사이로 향하는 발걸음은 시장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한 길 위에 놓일 수도 있고, 과거의 이상향에 대한 갈망을 의미할 수도 있으며, 세계를 구성해 온 기존 질서에 저항하려는 몸부림이 될 수도 있다. 서로 다른 지향점은 지식, 학문, 대학, 사회에 관한 고유의 플롯에 따른 학제성 시나리오로 귀결되었고, 나름의 모순들도 함께 가져다주었다.

지식경제 시대의 수월성을 나타내는 블랙홀이 되어버린 학제성은 그 중에서 자본의 확장에 이익이 되는 각본을 채택하고, 자신의 무의미성을

41) Stanley Fish (1989), pp. 105-106.

42) 아리프 달릭(1998), 설준규, 정남영 역, 『전지구적 자본주의에 눈뜨기』, 서울: 창작과비평사, p. 20.

43) 임성순(2010), 『컨설턴트』, 서울: 은행나무, p. 97.

이용하여 상충하는 입장들을 모두 수렴시키고 있다. 국민국가의 쇠퇴로 교양, 문화, 주체의 꿈이 허물어져버린 자유주의적 입장과, 근대성의 배제에 대한 저항의 무화(無化)에 포위된 급진주의적 입장은 수월성의 대학이 발휘하는 긍정의 과잉 앞에서 부정의 힘을 잃은 듯 보인다. 진화하는 자본의 전략에 이제는 어떤 각본을 들고 맞서야 하는 것일까. 또 다른 학제성의 각본을 구상하기 전에 필요한 것은 그것이 갖는 근원적 딜레마에 대한 인식일 것이며, 이는 필연적으로 학문체제에 대한 질문을 동반한다.

근대와 후기 근대를 통틀어 학문체제의 구성원리이자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아마도 분업일 것이다. 2,400배의 기적적인 생산성 증대를 가져온다던 분업. 사회의 하위구조로서 학문은 사회·경제적 분업과 조응하는 학문적 분업을 통해, 근대 사회가 그 몸집을 불러왔던 것처럼 끝없이 자기를 생산하고 재생산해왔다. 그리하여 우리는 전문가들의 사회, 삶을 이루는 거의 모든 것을 그들에게 의존해야 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 우리를 무력화하는 분업 앞에 학제성은 어떤 답을 내놓았는가? 기존에 물리학자가 물리학을, 사회학자가 사회학을, 철학자가 철학을 했듯이, 이제는 생물정보학자가 생물정보학을, 미디어학자가 미디어학을, 여성학자가 여성학을 한다. 그리고 여전히 학자는 학문만 한다.

터너(Turner)의 말처럼 학제성은 새로운 목적을 위한 새로운 분업일까?⁴⁴⁾ 나는 그것이 같은 목적을 위한 새로운 분업이라고 본다. 인간에 의한 생산이나, 기계에 의한 생산이나, 수동화된 기계의 생산이나, 자동화된 기계의 생산이나의 문제만 달라졌을 뿐 무언가를 생산하는 것이 늘 최고의, 최후의 과제였던 것처럼, 학문에 의한 지식 생산인지, 학제성에 의한 지식 생산인지만 달라졌을 뿐이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하는 전문가적 분업체제 또한 학제성이라는 명목 하에 더욱 세분화되고 있을 뿐이다. 그것은 자발적 규율을 영속화하고 세계를 식민화하면서도 거짓된

44) Stephen Turner (2000), "What Are Disciplines? And How Is Interdisciplinarity Different?", *Practising Interdisciplinarity*, p. 56.

포만감을 안겨 준다.

그러므로 범위가 제한되고, 계속해서 ‘더 많은 똑같은 것’을 만들어내며, 스스로에 대해 성찰하지 못한다는 분과학문에 대한 비판⁴⁵⁾은 모두 학제성에 되돌려질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분과학문과 학제성이 속해 있는 닫힌 체계가 궁극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경계짓기 없이 존재할 수 없는 분과학문은 근본적으로 취약하며, 따라서 지속적으로 자신을 방어해야만 한다. 학제성은 영리한 방어전략이다. 그것은 타자에 대한 배제를 기반으로 하는 기존의 전략을 타자에 대한 포섭으로 탈바꿈시킴으로써, 분업과 규율과 식민지를 만들어내는 고리를 새로운 희망으로 보이게 하는 마법을 선사한다. 분과학문의 감옥을 개조한 학제성의 미로는 ‘가능성의 환영’⁴⁶⁾을 재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뭔가에 반대한다는 것은 한편으로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다”라는 말을 상기시킨다.⁴⁷⁾

학문과 학제성은 세계와 경험의 총체성 상실에 대한 불만족으로부터 배태되었지만 그것에 대한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 애초에 학문이나 과학이라는 것은 세계에 대한 직접적인 감각 경험을 상징화, 추상화함으로써 세계와 경험을 허구적 각본의 식민지로 만드는 것이었다. 학문은 총체적 세계를 파편으로 쪼개고, 그것의 재현이라고 믿어진 것의 복제본의 복제본...을, 그것에 대한 해석의 해석의 해석...을 계속해서 생산함으로써 생동하는 세계를 파괴하고 제거했다. 그 상속자인 학제성이 학문의 병리학을 계승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학문을 개혁하겠다는 학제성의 약속과 함께 삶과 세계로부터 멀어지는 탈영토화는 점점 더 심화되는 중이다. 학제성이라는 ‘시물라크룸’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시나리오’인가?

학문 없는 세계의 윤리는, 비윤리적인 분과학문의 시대를 거쳐, 드디어 윤리가 다양하다 못해 사라져버린 학제성의 시대를 목도하고 있다.

45) Angelique Chettiparamb (2007), p. 9.

46) 백상현(2016), 『라깅의 루브르』, 파주: 위고, pp. 87-88.

47) 어슐라 르 쿨(2014), 최용준 역, 『어둠의 왼손』, 서울: 시공사, p. 216.

윤리가 상실될수록 윤리적 의식화와 도덕주의는 더욱 강조되는 법이다. 다시 르 권의 질문이 앞을 가로막는다. 지금 서 있는 길 위에서 또 다시 방향을 바꾸는 것으로 충분한가? 뒤돌아 걷는다 해도 우리는 여전히 그 길 위에 있을 뿐이다. 구조조정의 길 위에서, ‘학문들 사이’에서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참고문헌

【논 저】

- 김봉률(2011), 『어두운 그리스』, 부산: 경성대학교 출판부.
- 백상현(2016), 『라캉의 루브르』, 파주: 위고.
- 손준현(2015), 「대중 머릿속 ‘포르노 현상’...이게 바로 한국사회의 민낯」, 한겨레 웹페이지, 한겨레, 2017. 8. 17. <http://www.hani.co.kr/arti/culture/music/693278.html>.
- 아리프 딜릭(1998), 설준규, 정남영 역, 『전지구적 자본주의에 눈뜨기』, 서울: 창작과비평사.
- 어슐라 르 귄(2014), 최용준 역, 『어둠의 왼손』, 서울: 시공사.
- 임성순(2010), 『컨설팅트』, 서울: 은행나무.
- Ash, Mitchell G. (2006), “Bachelor of What, Master of Whom? The Humboldt Myth and Historical Transformations of Higher Education in German Speaking Europe and the US”, *European Journal of Education* 41, pp. 245-267.
- Balkin, Jack M. (1996), “Interdisciplinarity as Colonization”, *Wash. & Lee L. Rev.* 53, pp. 949-970.
- Chettiparamb, Angeliq (2007), *Interdisciplinarity: A Literature Review*, Interdisciplinary Teaching and Learning Group.
- Davis, L. J. (2007), “A Grand Unified Theory of Interdisciplinarity”, *The Chronicle of Higher Education* 53, p. B9.
- Fish, Stanley (1989), “Being Interdisciplinary Is So Very Hard to Do”, *Profession*, pp. 15-22.
- Hearn, Alison (2003), “Interdisciplinarity/extradisciplinarity: On the University and the Active Pursuit of Community”, *History of Intellectual Culture* 3, pp. 1-15.
- Jacobs, Jerry A. (2009), “Interdisciplinary Hype”, *The Chronicle of Higher Education* 56, pp. B4-B5.

- Jacobs, Jerry A. and Frickel, Scott (2009), "Interdisciplinarity: A Critical Assessment", *Annual Review of Sociology* 35, pp. 43-65.
- Kann, M. E. (1979), The Political Culture of Interdisciplinary Explanation, *Humanities in Society*, 2, pp. 185-200.
- Klein, J. T. (2005), *Humanities, Culture, and Interdisciplinarity: The Changing American Academy*,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_____ (1996), *Crossing Boundaries: Knowledge, Disciplinarity, and Interdisciplinarity*, Charlottesville, NC: University of Virginia Press.
- _____ (1990), *Interdisciplinarity: History, Theory, and Practice*, Detroit: Wayne State University Press.
- Liotard, Jean-François (1984), *The Postmodern Condition: A Report on Knowledge*, Trans. Geoff Bennington and Brian Massumi,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Moran, Joe (2006), *Interdisciplinarity*, London: Routledge.
- Parker, Joe (2012), "The Ethico-politics of Dedisciplinary Practices", *Interdisciplinarity and Social Justice: Revisioning Academic Accountability*, (ed. by Joe Parker, Ranu Samantrai, and Mary Romero),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Readings, Bill (1996), *The University in Ruin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Repko, Allen F. (2008), *Interdisciplinary Research: Process and Theory*, Thousand Oaks, CA: Sage.
- Schmidt, Jan C. (2007), "Knowledge Politics of Interdisciplinarity: Specifying the Type of Interdisciplinarity in the NSF's NBIC Scenario", *Innovation* 20, pp. 313-328.
- Scott, James C. (1998), *Seeing Like a State: How Certain Schemes to Improve the Human Condition Have Failed*, New Haven, Conn.: Yale University Press.
- Shumway, David R. and Messer-Davidow, Ellen (1991), "Disciplinarity: An Introduction", *Poetics Today* 12, pp. 201-225.
- Suarez-Villa, Luis (2001), "The Rise of Technocapitalism", *Science &*

438 인문논총 제74권 제4호 (2017.11.30)

Technology Studies 14, pp. 4-20.

Turner, Stephen (2000), "What Are Disciplines? And How Is Interdisciplinarity Different", *Practising Interdisciplinarity*, pp. 46-65.

원고 접수일: 2017년 10월 11일

심사 완료일: 2017년 11월 13일

게재 확정일: 2017년 11월 13일

Abstract

The Different Scenarios and Dilemmas of Interdisciplinarity

Kim, Hyena*

Interdisciplinarity has been established as a useful way of legitimization for the university, which is presently facing an identity crisis. Accompanying rhetoric, such as flexible, free, innovative or resistant, testifies to its stratagem to assimilate diverse political and epistemological positions through dereferentialization. This paper presents a critical examination of different discourses surrounding interdisciplinarity, categorized into technocapitalism, liberalism, and radicalism, in order to debunk the 'interdisciplinarity myth'. Among these discourses, technocapitalism seems to dominate the battlefield of interdisciplinarity with the hype of innovation, problem-solving, and accountability. Despite its disguised neutrality, it successfully achieves accumulation of capital by technocracy in a broad sense. Liberalism, as a descendant of the Humboldtian idea of the modern university, pursues liberation of humanity based on the unity of knowledge. But such nostalgia has lost its sway in the posthistorical university, leaving the existing system intact. As a more recalcitrant counterpart to the aforementioned approaches, radicalism challenges all dis-

* 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General Studies, Daegu University

ciplinary divisions in the world predicated on boundary work. However, it has also been disempowered in a contradictory relationship with the system. Meanwhile, interdisciplinarity, armed with inclusion rather than exclusion, has developed into an excellent instrument to satisfy the desire of the capital. A critical reflection on the different scenarios of interdisciplinarity leads to the conclusion that interdisciplinarity shares the cognate pathologies of disciplinarity, including the division of labor, production, and abstraction. The question that lies before us is whether or not we still need another new script to struggle with the simulacrum of interdisciplinarity and to eradicate the pathogen of repetitive restructuring.